

밀레코리아, 서울성모병원과 의료용 전문세척기 공급 계약 체결

- 수술도구 등 세척용 대형살균세척기 8대 내년 공급
- 첨단 산소세척프로그램 등 탑재... 단시간에 많은 양의 도구 완벽 세척
- 모든 세척과정 전자식으로 모니터링... 사용 편의성 뛰어나

독일 명품가전업체 밀레(밀레코리아 대표 안규문. www.miele.co.kr)는 수술용 도구와 실험기구 등을 세척하는 밀레 프로페셔널 대형살균세척기(모델명: PG8528) 8대를 내년 4월에 개원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밀레코리아가 국내 병원에 의료기기 세척용 밀레 프로페셔널 대형살균세척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납품될 밀레 프로페셔널 대형살균세척기는 독일을 비롯해 유럽 내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AMC (The Academic Medical Center), 오스트리아의 란데스크리쿰 비인 노이슈타트 병원 (Landeskrankenhaus Wiener Neustadt), 프랑스 리옹의 프리베 장 메르모 병원(Hôpital Privé Jean Mermoz) 등 다수의 대형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밀레 프로페셔널 대형살균세척기는 강력한 듀얼 순환펌프와 첨단 산소세척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수술용 도구와 실험기구를 완벽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매스나 수술가위 등 일반 수술도구를 담은 세척 바스켓 15개와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수술도구 7세트, 복강경 수술 등에 사용되는 수술도구 3세트, 플라스크와 같은 실험실용 유리도구(110ml~250ml) 115개를 한 번에 세척할 수 있다.

특히 세척기에 탑재된 밀레만의 특허 기술인 옥시바리오(OXIVARIO), 오도바리오(ORTHOVARIO) 산소세척프로그램은 수술 중 각종 의료도구를 오염시키는 이물질들을 완벽하게 살균, 세척해주며, 수술 후 의료기기에 남아있는 단백질과 응고된 혈액까지 완벽히 제거해준다. 뿐만 아니라 인간광우병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을 유발시키는 변종된 단백질까지 제거해준다.

고온의 93도에서 10분간 열소독하는 후레쉬워터시스템(Fresh Water System)은 곰팡이와 바이러스 등을 말끔히 제거해 주며, 세척기에 장착된 고밀도의 헤파(HEPA) 필터는 세척통 내부로 불순물이 유입되는 것을 99.92% 차단, 세척과정에서 살균기구들이 재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세척 중에는 세척기 분사구의 정확한 속도(Perfect Speed)와 화학작용 과정(Perfect Flow), 전도율과 세척액 잔존물(Pepect Pure) 등을 감지할 수 있고, 감지된 정보들은 스크린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버튼 하나로 의료기구세척에서 건조까지 전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특수 실내등을 부착한 퍼펙트비전(PerfectVision)도어는 세척통 내부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설계돼 있다.

밀레 프로페셔널 대형살균세척기에는 세척이 힘든 각종 수술도구들까지 세척이 가능하도록 총 18개의 기본 세척프로그램이 탑재돼 있으며, 사용자에게 맞게 총 64개까지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응용한 프로그램은 편집과 저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노트북과 LAN선으로 서로 연결이 가능해 세척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 추가가 가능하며 세척과정을 문서로 저장이 가능하고 USB로도 옮길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

밀레 프로페셔널 대형살균세척기는 슬라이딩 도어방식을 채택해 세련된 디자인 보여주며 재질은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했다.

밀레코리아 프로페셔널 팀장 000는 “이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형살균세척기 납품으로 인해 최고 품질의 밀레 의료기기세척기를 국내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대형병원과 제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1899년 설립된 밀레는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주방가전 전문업체로, 1966년부터 의료 및 실험실용 세척기를 개발 및 생산해 왔다.

<끝>